

하루 만에 끝난 14대 마지막 총회

조계종 중앙총회, 선거법 등 주요법안만 처리하고 폐회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보선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84회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중앙총회의원 80명 가운데 51명이 참석했다. 총회에는 △승려법 개정안 △승무원법 개정안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불교사회활동진흥법 개정안 등 27개 개정법안과 중무보고, 종책질의 건 등이 상정됐다.

총회에서는 첫 안건으로 상정된 '승려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사유재산 종단 '귀속'은 '출연'으로 명칭 변경되고, 재산 출연은 예비승까지도 확대됐다. 유언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계와 법계 품수 등이 제한되도록 명시했다. 또, 유산재단에 유증된 재산은 승가복지 및 승려교육 기금으로 사용하며 목적 불사를 위한 별도 회계관리를 하도록 했다.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184회 조계종 임시중앙총회 개회식에서 스님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총회의원 스님들은 호계위원 자격과 심판 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호계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호계원법에서는 민사심판과 재정신청, 특별심 제도를 신설해 호계원의 권한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라 호계원은 승려 개인 징계 뿐만 아니라 사찰과 사찰, 사찰과 승려, 승려와 승려 사이의 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도 갖게 됐다. 또, 재정신청 권한이 생겨 호법부장관의 제소와 무관하게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됐다. 특별심을 통해서 호계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호계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호계위원의 자격도 강화했다. 호계위원과 호계

위원이 △울원 교직자 △울원 졸업 △호계위원 △중앙승가원 중무원 △중앙총회의원 △교구본사 호법국장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재심호계위원은 승납 30년 이상, 세납 50세 이상으로 5년씩 상향 조정했다.

또, 징계 회부자의 인권보호와 명확한 판결을 위해 20일이었던 초심호계위원의 심리기간을 50일로 늘리고, 사건을 병합·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의를 표명한 前 호법부장 덕문 스님 후임으로 상은 스님의

임명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직능지 총회의원 보궐로 월공 스님이 의원 선서를 진행했고, 인기만료된 소정심사위원에 주혜·동산·원일·범산·청우·해자·성무·덕조 스님이 선출됐다.

총회에서는 신도의 수행경력·교육 정도에 따라 품계를 나누는 '신도법 개정안', 신도교무금 조성위원회를 구성해 신도교무금을 책정시행토록 하는 '종단교무금납부관련법 개정안', 문화재구역인정료 총액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징수하는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 종단 기금명 설치 근거를 마련한 '예산회계법 개정안' 등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원단 차원의 사회활동과 불교NGO 지원의 근거가 되는 '불교사회활동진흥법'과 '중앙총회선거법 개정안', '교구총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하지만 제15대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거주승 선거권에 대한 판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은 제15대 중앙총회로 넘겼다.

노덕현 기자

법규위, 성희롱 사건 “유감”

대변인이 당사자 직접 면담키로

증인으로 출석한 50대 여인의 문제제기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소된 조계종 법규위원회가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성첸)는 9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6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법규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법규위원회 현안 문제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소된 건을 주제로 의견을 냈다.

성희롱 발언 당사자로 알려진 A스님은 "사건에 대한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유감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회의는 A스님의 주장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법선 스님을 법규위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선 스님이 사건당사자인 50대 여인(박모 씨)을 만나 최대한 설득키로 했다.

대변인 법선 스님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법규위원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증인 심문 과정에서 능숙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특히 박모 씨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민망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법규위원들의 뜻을 박씨가 인지하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국가기관에 제소된 부분을 마무리해 준다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5대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거주승 선거권에 대한 판단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은 제15대 중앙총회로 넘겼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종단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를 통해 법규위원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으나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위원스님이 법규위원 전원의 사퇴를 주장했지만 다수의 의원 반대로 무산됐다.

또, 호계원의 판결 내용을 두고 법규위가 사실관계를 새로 밝히겠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 호법분과위원회는 6일 "호계원의 심판결정을 법규위원회가 심리한 데 이어 사실관계까지 확인하려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공문을 법규위에 발송했다.

법선 스님은 "8일 직접 제주도로 내려가 법규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박모 씨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일 현재, 법선 스님은 A스님이 뜻을 굽히지 않아 박모 씨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선 8일,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성명서를 통해 참회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대중결사는 성명서에서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와 발언이 용납되지 않지만 종단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법규위원회의 이번 사태는 개인적 차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종단 내 인권 의식과 인권 보호 제도의 부재를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대중결사는 △사태를 야기한 해당 법규위원의 참회와 사퇴 △법규위원회의 책임있는 사과 △총무원 차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중앙총회의 법규위원 자격심사 강화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 탄핵 두고 내홍

인공 스님, 담화문을 통해 해명 시도 16일 임시중앙총회에서 판가름

태고종이 총무원장 탄핵을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태고종 중앙총회(의장 원봉)는 최근 "9월 16일 대전 스파피아에서 제103회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탄핵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자 인공 스님은 8일 '안정 화합으로 종단 발전을 이

룩하자'는 제하의 담화문을 통해 종단 부채 등 현안에 대한 해명을 시도했다. 이어 9일 중앙총회가 반박 성명을 내고 16일 총회 개최의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탄핵은 8월 6일 지방교구 총무원장 회의에서 가시화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무원장들은 인

공 스님의 행정력 부재 등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결의해 총무원에 전달했다. 총무원장스님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조 종정 스님에게 불경 행위를 저지른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의 옹호 건, △봉원사 남골당과 관련해 발생한 종단 명의의 부채 해결을 방치한 점 △G20성공기원 영산재와 관련해 구속된 신도회장에 대한 도의적 책임 △종단제도 개혁을 반대한 점 △행정능력 미흡과 건강 문제로 의욕적 활동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인공 스님의 총무원장직사퇴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인공 스님은 담화문에서 △봉원사 부채는 봉원사가 해결할 것이고 △영산재 행사비에 종단은 법적 책임이 없으며 △종단 제도개혁은 반대가 아닌 신중한 시행을 △총무행정과 관련해 지탄 받은 일 한 건 없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인공 스님의 담화문에 대해 중앙총회 측은 "인공 스님의 해명은 사태위기를 모면하여 자리(총무원장)를 보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중앙총회 측은 "총무원장은 종단 대표자로서 종단에 무한책임을 지야 한다"면서 "총무원장은 지금이라도 종정 이하의 뜻과 종도의 여망을 받들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대중화합을 위해 합의했다”

성타 스님 단독 출마 불국사 새 주지 후보로 선출

차기는 종광 스님으로 합의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됐던 불국사 주지 후보 선출이 막판 합의에 따라 성타 스님(사진)으로 확정됐다.

불국사 주지후보 선거는 유력 후보였던 종광 스님이 대중화합을 이유로 후보를 사퇴하자 종문·장주 스님도 사퇴해 성타 스님이 단독 출마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9월 9일 산중총회를 열고 성타 스님을 제25대 주지 후보로 확정했다. 성타 스님은 산중총회에서 후보 확정 후 "불



국사와 지역사회, 불교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광 스님은 산중총회에서 공개한 '문도화합의 글'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문도들에게 부담을 준 것에 참회한다. 대중화합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문도화합의 글'에 따르면 성타·종광 두 스님 측은 이번 주지는 성타 스님이, 차기는 종광 스님이 맡기로 합의했다.

조동섭 기자

(사) 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입종 및 금강계단 안내

입종 안내

(사)한국불교연화조계종은 2010년 7월 23일 관련 부서로부터 법인허가를 득하였으며 (2010-17호) 등기 (234121-0001430호)를 필한 종단으로 제방의 참신한 스님들의 입종을 기다립니다.

- 본 종단은 중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 본 종단의 예결산은 투명합니다.
- 본 종단은 법인 이사장 및 이사들의 출연으로 승려 노후 복지원을 설치, 스님들의 안식처를 제공할 것입니다.
- 본 종단은 비구니 별정원을 두어 자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 본 종단은 금년 말까지 입종하시는 스님, 사암은 등록비 일체를 면제합니다. (등록비, 금년도 분담금 및 공과금 일체)

금강계단 안내

- 본 종단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수계(득도, 사미, 사미니, 비구, 비구니)를 미루어 오신 스님들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수시 금강계단을 설단합니다.

- 종단, 종파를 불문합니다.

행자교육 안내

- 승려(재가승 포함)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나 사암(포교원)을 운영하시려는 분의 교육을 위하여 본산 및 총무원에서行者 교육을 실시합니다.

■ 입종문의 : 전화 054)231-3101 (총무원) / 팩스 054)242-9301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474번지

불기 2554년 9월

(사)한국불교 연화조계종 총무원장 보월 합장